

空間 1966 50TH ANNIVERSARY 2016

SEP. 2016

586

# SPACE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PLATFORM-L: A SPACE  
THAT COMMUNICATES  
WITH 'IMMEDIACY'**

**EXHIBITING ARCHITECTURE:  
THE POWER OF THE SPECTACLE  
FOR NEW DISCOURSES**

Casal Balaguer – Flores & Prats Architects + Duch-Pizá

Nonhyeon 101-1 – Stocker Lee Architetti

Gyeongnuri Hall,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JU architects & planners

Interlaced Folding – Hyoung-gul Kook + Urban Intensity Architect

Wade Guyton: The Digital Ghosts and The Epiphany of Painting

MMCA HYUNDAI MOTOR SERIES 2016: KIMSOOJA / ARCHIVE OF MIND

APMAP 2016 Yongsan Make Link

A Village in the Precincts of Temple, A Duck Village and the Next One:

The Hama Village Project

Interactive Media Art Becomes Popular?: 'teamLab World'





006  
NEWS

019  
BOOK

118  
INFORMATION

## 020 Feature

플랫폼-엘, ‘바로 지금’과 교감하다  
**Platform-L: A Space that Communicates  
with ‘Immediacy’**



©Namgoong Sun

**022 Essay**  
유연한 확장과 의미의 재구성\_ 이정훈  
**Flexible Extensions and Reconfigurations of its Meaning\_**  
Jeonghoon Lee

**024 Project**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 조호건축사사무소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 JOHO Architecture**

**032 Critique**  
화양연화\_ 최춘웅  
**In the Mood for L\_ Choon Choi**

**038 Interview**  
예술과 기업이 그리는 상생의 곡선\_ 전용준, 이정훈×박성진  
**Coexistence between Art and Corporate World\_**  
Jeon Yong Joon, Jeonghoon Lee × Park Sungjin

## 042 Feature

건축 전시,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스펙터클의 힘  
**Exhibiting Architecture:  
The Power of The Spectacle for New Discourses**



©Kim Tae Yoon (Kyungsub Shin Studio)

**044 Article**  
건축 전시의 문제 또는 가능성\_ 케이트 구드윈  
**Exhibiting Architecture: Problems or Possibilities?\_ Kate Goodwin**

**050 Report**  
건축 전시의 매체와 연출 기법: 건축 전시의 스펙터클\_ 박계현  
**The Medium and Curatorial Techniques of Architecture Exhibitions:  
The Spectacle of the Architecture Exhibition\_ Park Gye Hyun**

**056 Report**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이벤트: 직관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_ 우현정  
**Visual Communication Tools and Events: Seeing Intuitively, Actively  
Intervening\_ Woo Hyunjung**

월간「공간」

제51권 제9호 (통권 586호)  
2016년 8월 25일 발행  
1966년 9월 6일 등록 라803호  
정가 18,000원

COVER  
©Namgoong Sun (front)  
©Kim Tae Yoon (Kyungsub Shin Studio)  
(back)

**PUBLISHER & EDITOR**  
황용철 Hwang Yongchul

**ADVISORY COMMITTEE**  
피터 쿡 Peter Cook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  
이소자키 아라타 Isozaki Arata  
로버트 아이비 Robert Ivy

**EDITORIAL BOARD**  
이용우 Yongwoo Lee  
김광현 Kim Kwanghyun  
김선정 Sunjung Kim  
김찬중 Kim Chanjoong  
한은주 Han Eunju

**SPACE ACADEMIA CHIEF EDITOR**  
정만영 Mann-Young Chung  
김성홍 Sung Hong Kim  
이상현 Sanghun Lee

**EDITOR-IN-CHIEF**  
박성진 Park Sungjin  
(modori@spacem.org)

**EDITOR**  
우현정 Woo Hyunjung  
(jung@spacem.org)  
박계현 Park Gye Hyun  
(gyehyun@spacem.org)  
전종현 Harry Jun  
(harry@spacem.org)  
공을채 Kong Eulchae  
(eulchae@spacem.org)  
윤솔희 Yoon Solhee  
(solhee@spacem.org)

**GUEST EDITOR**  
심영규 Shim Youngkyu  
(shim091@gmail.com)  
심미선 Jane Misun Shim  
(creatif.jane@gmail.com)

**DESIGNER**  
최승태 Choi Seungtae  
(keyersoze@nate.com)  
이노을 Lee Noeul  
(noeul@spacem.org)

**PHOTOGRAPHER**  
남궁선 Namgoong Sun  
(viewpt@naver.com)  
윤준환 Yoon Joonhwan  
(baram76@hanmail.net)  
신경섭 Kyungsub Shin  
(shinkyungsub@gmail.com)  
에프라인 멘데스 Efraín Méndez  
(info@archframe.net)

**ENGLISH LANGUAGE EDITOR**  
나탈리 페리스 Natalie Ferris  
(nlferris25@googlemail.com)

**TRANSLATOR**  
김석원 Kim Seokwon  
(seokwon.kim@hotmail.com)  
노성자 Ro Seongja  
(seongjaro@gmail.com)  
권태준 Kwon Taejune  
(tjunekwon@gmail.com)  
김태호 Kim Taeho  
(rlaxoghsia@gmail.com)  
이기는 Rhee Kieun  
(rhee.kieun@gmail.com)  
지주현 Jee Joohyun  
(tarzanzeeb@gmail.com)  
주지훈 Christopher Jeehoon Ju  
(christopher.jju@gmail.com)

**KOREAN LANGUAGE PROOFREADER**  
하명란 Ha Myungran  
(totoami@naver.com)

## 060 Project



©Adrià Goula

카살 발라게르 - 플로레스 & 프라츠 아키텍츠 + 덕-피사  
Casal Balaguer – Flores & Prats Architects + Duch-Pizá

## 070 Critique



©Simone Bossi



©Yoon Joonhwan



©Kyungsub Shin

### 070

논현 101-1 - 스톡커리건축 / 글 장영철

Nonhyeon 101-1 – Stocker Lee Architetti / written by Jang Young

### 076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 / 글 김홍일, 박준호

Gyeongnuri Hall,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

JU architects & planners / written by Kim Hong-ill, Joon Park

### 082

양평 병산리 펜션 - 국형걸 + UIA건축사사무소 / 글 김창균

Interlaced Folding – Hyoung-gul Kook + Urban Intensity Archite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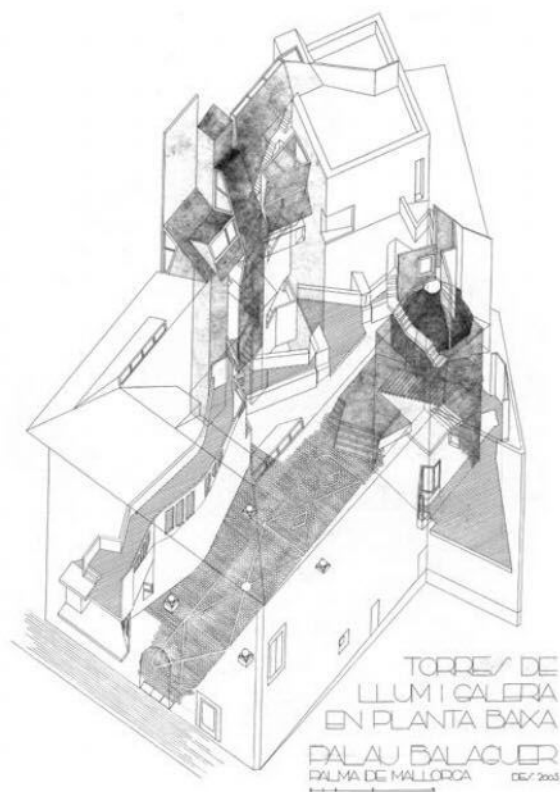
written by Kim Changgyun



# 카살 발라게르

## Casal Balaguer

플로레스 & 프라츠 아키텍츠 + 둑-피사  
Flores & Prats Architects + Duch-Pizá



**Architect:** Flores & Prats Architects (Ricardo Flores, Eva Prats) + Duch-Pizá (Sé Duch Navarro, Xisco Pizá Alabern)  
**Design team:** Caterina Anastasia, Ankur Jain, Els van Meerbeek, Cristian Zanoni, Carlos Bedoya, Guido Fiszson, Ellen Halupczok, Julia Taubinguer, Paula Ávila, Nicolás Chara, Eugenia Troncoso, Israel Hernando, Hernán Barbalace, Benedikte Mikkelsen, Mar Garrido, Celia Carroll, Jorge Casajús, Juan Membrive, Oriol Valls, Tanja Dietsch, Sergi Madrid, Sergio Muiños, Lucas Wilson, Anna Reidy, Maria Amat Busquets, Fabrizia Cortellini, Veronica Baroni, Elvire Thouvenot, Carlotta Bonura, Francesca Tassi-Carboni **Location:** Palma de Mallorca, Spain **Programme:** cultural center **Building area:** 2,500m<sup>2</sup> **Archaeological survey:** Grupo Arqueotaller (Roser Pérez, Margalida Munar, Magdalena Salas) **Historical research:** Dolores Ladaria **Material analysis:** Lend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 Fernando Purroy **Contractor:** Contratas Bartolomé Ramón SA / phase 1 and phase 2, Cyrespa / phase 3 **Design period:** first project\_ 1996, second project\_ 2001 – 2002 **Construction period:** phase 1\_ Apr. 2009 – June 2010, phase 2\_ Mar. 2011 – Mar. 2013, phase 3\_ May 2014 – May 2016 **Budget:** 6,100,000 EUR **Client:** Municipality of Palma de Mallorca

materials provided by **image MEDIA AGENCY**  
 photographed by **Adrià Goula, José Hevia, Hisao Suzuki**

© Adrià Goula









## 다층적 시간의 틈새를 산책하기

리카르도 플로레스, 에바 프라츠(플로레스 & 프라츠 공동 파트너) × 「SPACE(공간)」

SPACE: 카살 발라게르는 1996년 디자인부터 시작된 총 3단계에 걸친 대공사로 알고 있다. 매 단계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단계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2013년에 2단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3단계를 끝내며 완공했는데, 2단계와 3단계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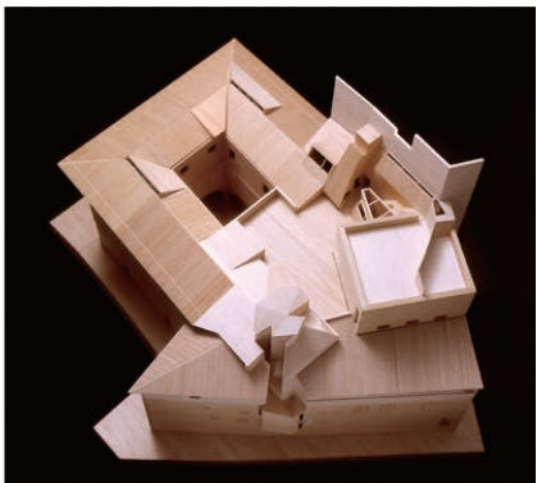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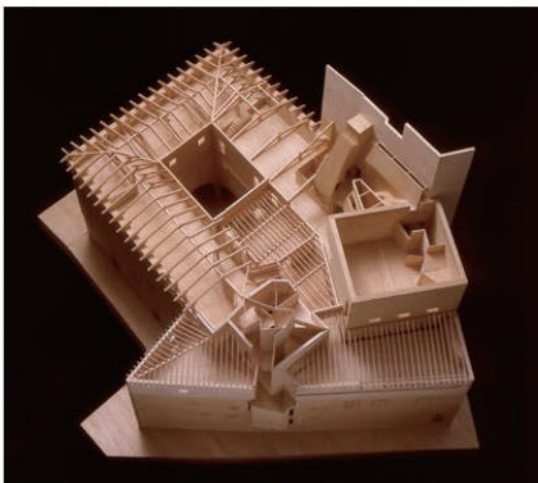
리카르도 플로레스, 에바 프라츠(플로레스, 프라츠): 카살 발라게르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다. 각 단계별로 그에 걸맞는 편당을 받기 위해서였다. 2009년 공사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목조 구조와 타일로 새로운 지붕을 만들어 내부공간이 더 이상 빗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았고,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건물 상층부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새롭게 콘크리트 계단과 승강기를 기존 옥외공간에 설치했다. 또한 층과 층 사이의 메자닌 레벨에 콘크리트 갤러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존 로비층에 있던 모든 설치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2012년 시작한 두 번째 단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구축됐다. 새 기반물을 만들고 로비층의 기둥과 아치들을 보강했다. 건축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공사 중 가장 복잡한 작업이었다. 이 이후에 아치를 지지하던 벽들을 철거하고, 그림으로써 입구 쪽 안뜰을 세 개의 중랑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다. 로비층 후방에 봉을 달고 메자닌 레벨에 부역을 설치하고 공간을 공개했으며 더불어 같은 레벨에 위치한 갤러리에 나무 재질의 창을 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2014년에 시작했다. 이때는 외부 파사드와 거주 가족이 생활했던 집의 중앙부(피아노 노빌레)의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SPACE: 14세기 처음 만들어진 이후 16세기 리노베이션, 18세기 확장 공사를 통해 카살 발라게르에는 다양한 역사가 쌓였다. 복구와 함께 현대적인 감성 또한 추구해야 하는 이번 작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 원형을 보존하는 부분과 새롭게 각색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개입의 척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플로레스, 프라츠: 18세기에 확장한 부분이 카살 발라게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기에 우리가 계승한 이 건물에 주요한 특징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다. 과거에 몇 차례 진행됐던 리노베이션은 각 과정의 이미지를 명료하게 하는 데 실패했다. 시대별로 서로 상이한 지형학적 요인으로 결국 주택의 각 부분 간의 연속성을 끊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건물을 바꾼 각 리노베이션 과정상에 나타난 차별점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명료화하는 데 집중했다.

SPACE: 주거 시설이었던 카살 발라게르를 문화시설로 만드는 프로그램적 변화를 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것을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프로그램과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플로레스, 프라츠: 개인 주택에서 공공 문화센터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건 큰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과거 서로 다른 가족들이 살았던 흔적이 담긴, 신비롭고 미묘하면서도 놀라기까지 한 이 공간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철거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의도를 살리기 위해 태양이 그리는 궤적에 따라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끌어와 방문객들이 직관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새롭게 만든 지붕에는 새로운 채광창의 설계를 반영했다. 여기서 내려오는 빛은 건물 내부의 각기 다른 층을 비추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그림자가 좌우로 횡단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몇몇 방들은 원래의 공간감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과거 여러 번의 증축을 거치면서 큰 공간이 하부공간으로 쪼개지며 원래의 크기를 잃은 상태였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빅 사이즈 건축 요소를 도입했던 것이 지금 그 거대한 공간감을 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안뜰로 이어진 거대한 콘크리트 계단이나 근처에 있는 석조 아치를 산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자닌 레벨의 갤러리, 기존의 돔 위에 볼록한 구조물 위를 산책할 수 있도록 채광창이 있는 방을 만드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 Hisao Suzuki



카살 발라게르의 층별 모형  
Models of each floor of  
Casal Balaguer

**SPACE:** Casal Balaguer is known for being a huge project carried out over five progressive stages since 1996. I would like to ask what the progress and main focus was at each stage. For example, the completion of the fifth stage this year marked the end of the whole project after the fourth stage was finished in 2014; what can be regarded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tages?

Ricardo Flores, Eva Prats (Flores, Prats): The building has been through three stages of construction. This is due to increased funding to afford each of the phases. Construction began with the first phase in 2009. This first phase was to build: A new roof, with wooden structure and tiles, to stop the rain that was ruining the inner rooms, and to make it possible to inhabit the upper level of the building, which until then had been inaccessible; The new concrete staircase and lift, built in the space of a former open air courtyard; The concrete gallery structure at the mezzanine level. For this it was necessary to demolish everything that was at this point on the ground floor.

The second phase, beginning in 2012, was to build: New found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olumns and arches on the ground floor; this was the most complicated operation in the building work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stabilization; After this, the demolition of the walls that were supporting the arches and therefore subdividing the entrance courtyard across three naves; The bar at the rear of ground floor level. Openings and building of the kitchen at mezzanine level; Wooden windows of the gallery at mezzanine level.

The third and last phase, starting in 2014, was to build: Restoration of the external facade; Rehabilitation of the main level (piano nobile) of the house, where the family used to live.

**SPACE:** Casal Balaguer, first built in the 14th century, renovated in the 16th century, and extended in the 18th century, is the accumulated result of various histories. Which part did you pay attention to the most in this project, requiring a modern sensibility as well as careful restoration? I would like to know what standards of intervention were to be applied to the original area to be conserved and the new design to be added.

Flores, Prats: The extension of the 18th century is the largest section of the building, and is the one that gives character to the building as we inherited it. The several phases of the palace failed to be articulated among them, with different geometries that didn't match and therefore produce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different parts of the house. So the project focuses on the different phases of growth of the building, in order to articulate its different zones.

**SPACE:**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programme of Casal Balaguer, originally a residential facility into a new cultural space, an extension was added to satisfy the programme's requirement while protecting the existing part of the building. In terms of structure and function, what kind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accommodate the changes to programme and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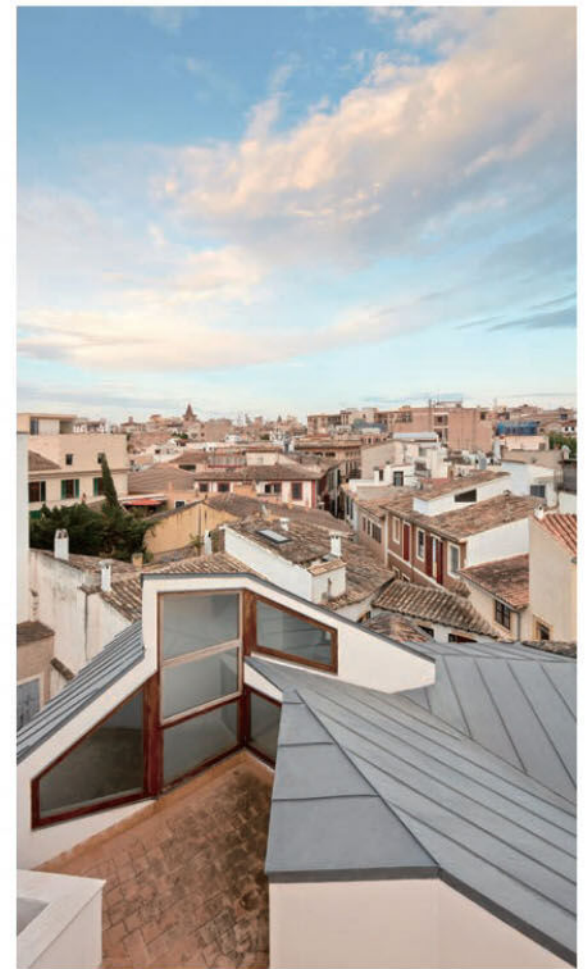
Flores, Prats: The change of the programme in the building from a private house to a public cultural centre presented us with the challenge of doing this without stripping too much of the building away, in an effort to keep the mystery, subtlety and surprising sequence of spaces lent by the many lives lived by the different family occupants. For this, we decided to use natural light to orientate the circulations through the building, making it more intuitive for a visitor. To get the natural light inside the building, new light wells were designed in the new roof. These skylights bring light down to different levels of the building, and you can see this in the shadows across the transversal section.

Some rooms recovered their original dimensions, huge sizes that have been lost with subdivisions over time. The palace is now again able to revel in the enormity of its scale, thanks in part to the introduction of larger size elements inside which seem not be able to fit in. This was the case of the huge concrete staircase that leads into the courtyard, the exhibition mezzanine gallery which now allows you to promenade near the stone arches, or the chambers of light above the existing dome which allows to promenade above its convex surface.

**SPACE:** The original part of the building is not clearly separated from the newly inserted or renovated part in terms of the individual identity of its form. In other words, it's not easy to discern, through form and volume, which part of the building was built in the past and which has been added. This complex system of time and space seems to offer an opportunity for experiencing a new kind of space. What is your opinion in this regard?

Flores, Prats: This describes precisely our interest in acting upon an existing building. We are not interested in cutting out and separating new interventions amidst an old fabric, but instead working in the continuity of our actions with previous actions that have affected the building across its history. In this sense, the final building is the result of the several hands that have touched it, and ours is just one more. We want to add our work to what we find, without any physical or conceptual distance in the history of the building. This is in our opinion the most contemporary way to treat old buildings now: not to separate from the ruin, but incorporate it within our project, and to bring both the ruin and our drawings forward to a new reality.

Now when you visit the building you can't really say what was from one period or the other, but you enjoy it all in one continuous promenade, trespassing time to time, each one melting to the other in a new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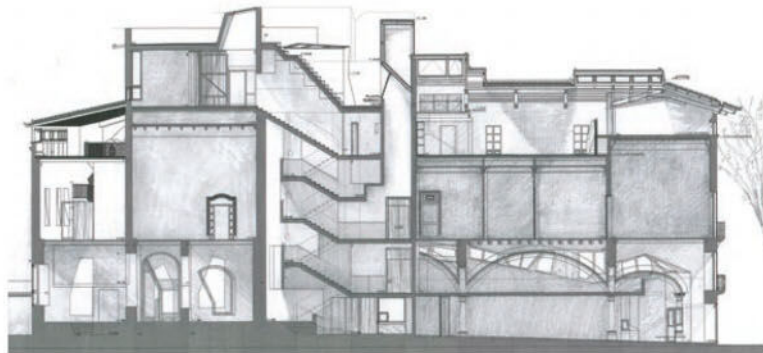
빛우물을 만들어 채광 효과를 끌어올렸다.  
Improved daylighting by introducing light well

© José Hevia





Site plan



Section

© Adrià Goula



카살 발라게르 1층 파티오 전경. 아치가 눈에 띈다.  
Patio on the first floor of Casal Balaguer with outstanding arch





고풍스러운 계단은 카살 발라게르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Antique stairs indicating old history of Casal Balaguer

© Adrià Goula



갤러리 공간은 기형적인 형태의 창문이 특징이다.  
Gallery space is featured by abnormal form of wind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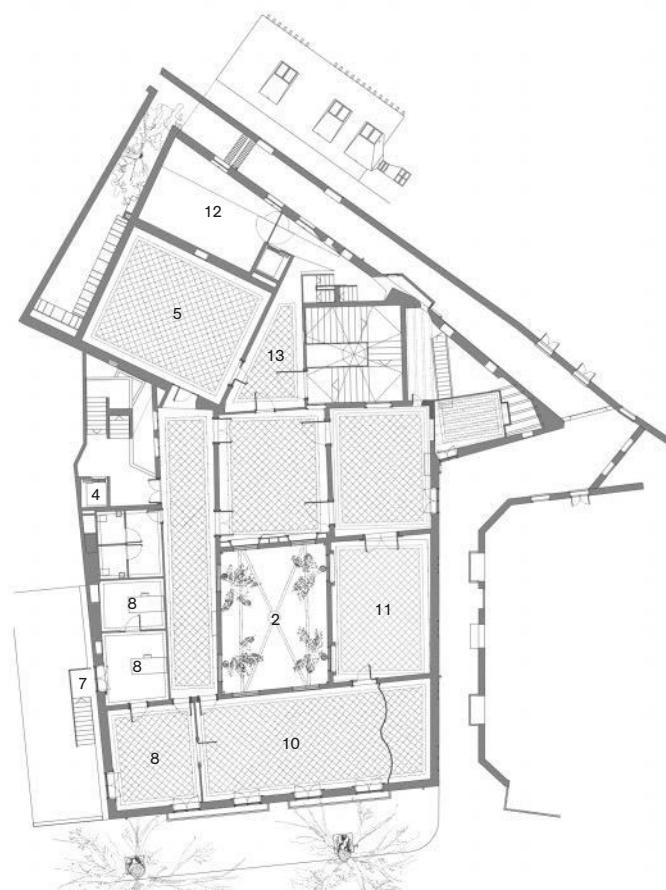


카살 발라게르 2층은 콘크리트와 기존 건축물 사이의 구축미가 눈에 띈다.  
Second floor of Casal Balaguer showing off architectural beauty between concrete and existing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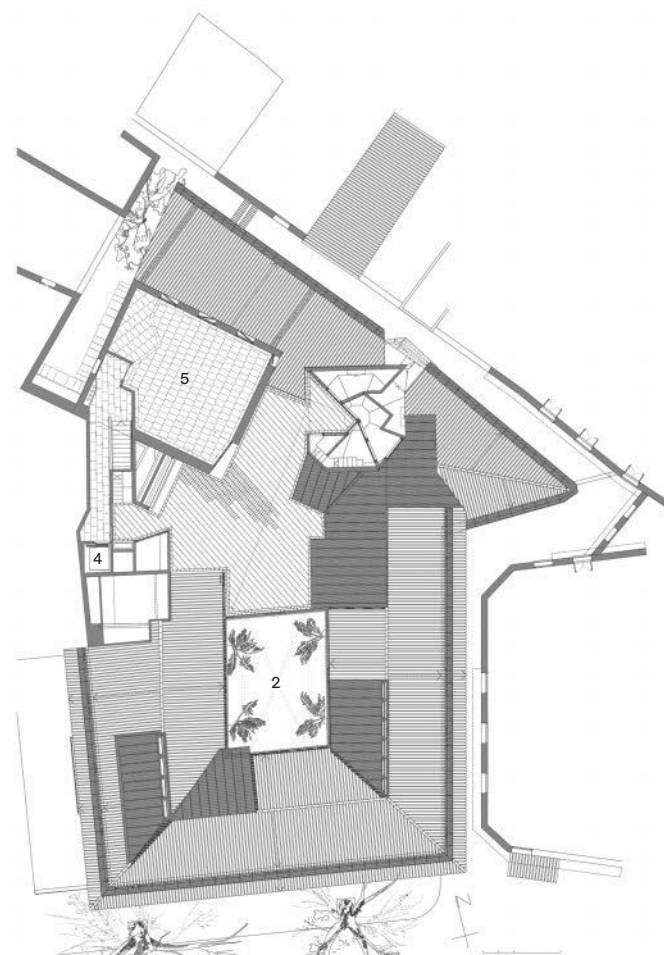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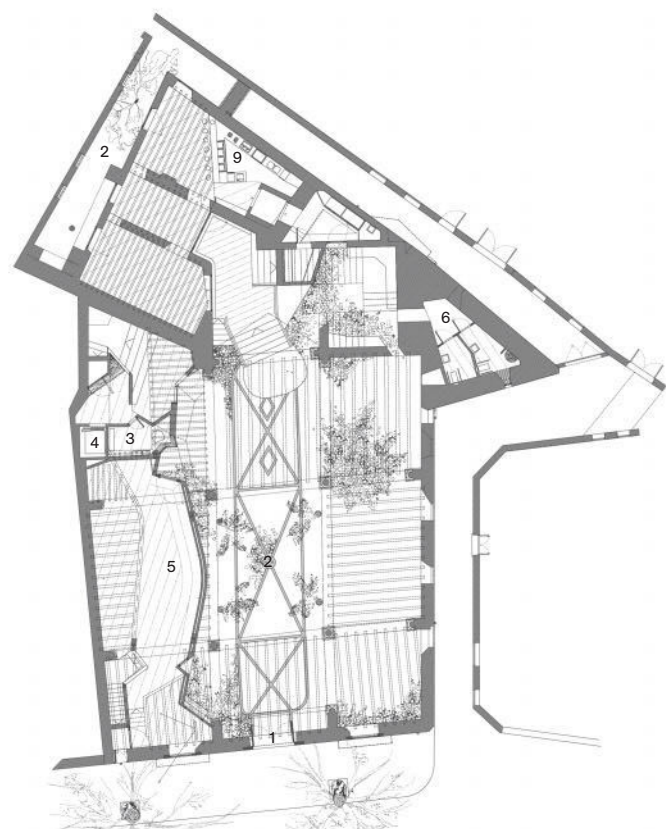
1. main entrance
2. patio
3. information
4. elevator
5. exhibition hall
6. toilet
7. terrace
8. office
9. kitchen
10. AV room
11. hall
12. artworks storage
13. lobby
14.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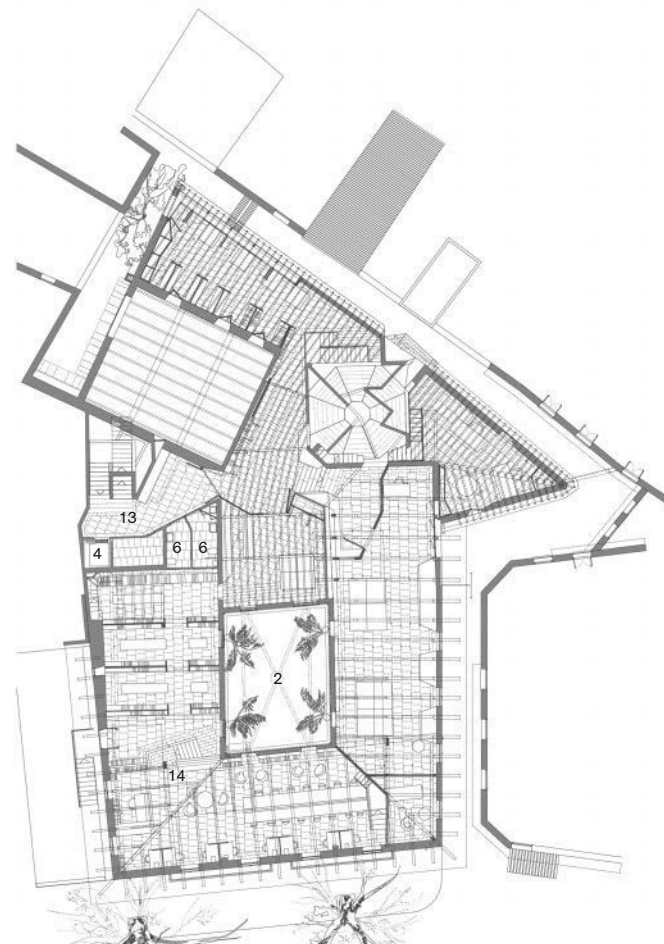
2F plan



roof plan



1F plan



3F plan

0 1 2.5 5m



© José Hevia



커스터마이징 목재 보로 구축한 3층의 도서관 공간이다.  
It is a library on the third floor built by customized wooden beams.

© José Hevia



© José Hevia



목재 보와 흰색 벽면의  
조화가 정갈하다.  
Wooden beams in neat  
harmony with white wall



**플로레스 & 프라츠 아키텍츠**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건축사무소다. 이론과 학술적 사례를 디자인과 건축 작업을 통해 정면으로 실험하는 것에 전력한다고 자부한다. 엔릭 미라예스 오피스에서 일하며, 리카르도 플로레스와 에바 프라츠는 리서치가 건물을 짓고 만드는 실무적인 책임과 언제나 이어지는 현장 속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오래된 건축물을 새로운 용도로, 이를테면 인근 지역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반영한 공공 도시공간 구축, 사회적 거주 공간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더불어 건축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바르셀로나와 코펜하겐에서 대중을 위한 전시전을 여는 등 그들의 작업물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현재 리카르도와 에바는 모두 바르셀로나 건축 대학 교수로 재임 중이며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세 독 나바로와 시스코 피사 알라베른**은 1995년 이래 스튜디오를 함께 써 왔다. 학창시절부터 이들은 엔릭 미라예스, 카르메 피노스, J.A 등의 건축 사무소에서 작업하며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마르티네스 라페나 & 엘리아스 토레스 아키텍츠는 지금도 그들의 건축 역량을 다듬는 일터이기도 하다. 현재 대표로 활동 중인 독-피사는 팔마의 유서깊은 거리인 산트 펠리우 17번가에 자리한 옛 신문사에 동지를 틀었다. 이런 환경은 건축 팀이 공간을 공유하고 주변의 여러 전문가와 친분을 가지며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이들은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를 강도높게 수행해왔는데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건축 사무소와 자주 협업한다.

**Flores & Prats Architects** is an architecture office from Barcelona, dedicated to the confrontation of theory and academic practice through design and construction activities. After their experience at Enric Miralles' office, Ricardo Flores and Eva Prats have developed a career where research has been always linked to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and building. The office has worked on the rehabilitation of old structures for new occupations, as well as on participation of neighbours in the design process of urban public spaces, and on social housing and its capacity to create a community. They have also experiment with the use of film to document architecture, or with menus of edible architecture for their exhibitions in Barcelona and Copenhagen as a way to bringing their work closer to a broader public. Ricardo and Eva are both professors at the School of Architecture of Barcelona, and have been invited as visiting professors to several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Sé Duch Navarro** and **Xisco Pizá Alabern** have shared a studio since 1995, and as students they had already worked together and learned the craft in the offices of Enric Miralles and Carme Pinós and of J.A. Martínez Lapena & Elias Torres Architects, from whom they still learn. The current office of Duch-Pizá where they manage occupies the spaces of an old newspaper, at 17 Sant Feliu Street in the Old Town of Palma. This allows the architecture team to share space, work and good times with other professionals, forming an open structure that is always ready to respond to new circumstances. They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public and private works and they often collaborate with architecture firms of international prestige.

